

제10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 제주어 공모전  
수상 작품집

# 제10회 공모전 수상 작품집



제10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 제주어 공모전  
수상 작품집

공10회  
글·말  
찾기

## 수상 작품집을 내며

# 더 많은 곳에서 제주어를 누리게 되기를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 제주어 공모전’이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해를 거듭할수록 제주어 공모전에 많은 분들이 제주어에 대한 사랑을 담아 지원해 주시고, 응모해 주셨습니다. 제주어를 살리고, 지키는 데에 뜻을 모아주신 덕택입니다.

올해는 학생부가 99편으로 일반부 47편의 ‘곶절’이나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묻어나는 표현들을 ‘조곤조곤’ 풀어낸 작품들이 많아서 좋았다.”라는 심사위원의 평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제주어의 ‘맛’을 살려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입상작을 모은 《히연 굴메》 수상 작품집을 냅니다. 《히연 굴메》는 김정미 님의 대상 수상작 제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곶물’을 떠 놓고 자식의 병을 고쳐 달라고 기원하는 어머니의 절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작품집에는 대상작을 포함, 일반부와 학생부 각각의 최우수작, 우수작, 장려

작 총 19편의 입상 작품이 담겼습니다. 다만, 책의 특성상 동영상 부문 장려상 수상 작품은 함께 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제주어를 누리게 되고, 제주어가 지속해서 숨을 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년 동안 제주어 공모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이누리 발행·편집인 **양성철**

|     |       |     |    |
|-----|-------|-----|----|
| 대상작 | 히연 굴메 | 김정미 | 10 |
|-----|-------|-----|----|

## 일반 부문

---

|      |                     |     |    |
|------|---------------------|-----|----|
| 최우수작 | 제주어 밧디 물웨영 강낭대축 싱그곡 | 임병건 | 14 |
| 우수작  | 복날 노래               | 김순란 | 18 |
|      | 돛 도고리               | 오창래 | 20 |
|      | 볼레낭개 메누리            | 이선영 | 22 |
| 장려작  | 시상천지 아깝고 곱드락흔 우리 딸  | 김은정 | 24 |
|      | 췌섬(件島)에서            | 오창래 | 28 |
|      | 살젠 흐는 건             | 강래화 | 30 |
|      | 단뜰애기 줍녀             | 강래화 | 32 |
|      | 느영나영 제주서 살게         | 강경인 | 34 |

## 학생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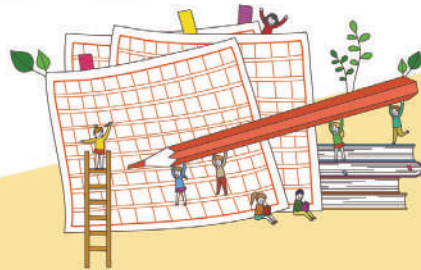
---

|      |                    |         |    |
|------|--------------------|---------|----|
| 최우수작 | 처음 보는 할망인디         | 조우현     | 38 |
| 우수작  | 죽은딸이 어머신디 편지 씬수다   | 김은정     | 40 |
|      | 딱땃허게 입으라           | 양나경     | 44 |
|      | 우리 할망              | 이예주     | 46 |
| 장려작  | 둘 보러 가게            | 김아영     | 47 |
|      | 곳을 걸을 때민           | 안다교     | 48 |
|      | 얼썬! 제라지다 제라져!      | 박수경     | 49 |
|      | 추물락ㅎ다              | 윤정민     | 52 |
|      | 기억해야 할 우리의 43(동영상) | 김지유·김동건 | 53 |
| 심사평  |                    |         | 56 |



# 아름다운 제10회 제주 말·글 찾기 제주어 공모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와 인터넷신문 제이누리가 함께  
**제10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제주어 공모전**을  
연입니다. 아름다운 제주 말과 글을 찾고 전승시키는 일에 여러분  
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공모 기간

2022. 5. 2.~9. 30.(5개월)

## 공모 대상

제주어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역, 연령 제한 없음)

## 공모 분야

학생 부문/일반 부문(대학생 포함)

## 공모 형식과 분량

글쓰기(시/산문/대역)-A4 3매 이내  
말하기(동영상)-5분 이내

## 공모 주제

자유

## 응모 방법



▲ 신청서 바로 가기

링크 접속 후 신청서 제출  
<https://docs.google.com/forms/d/1WZIFzaPhIE8U7TQRv7231BbDPCXWBZVwIFnQWorOIhc/edit>

## 시상식

- 일시: 2022. 11. 4. 15:00
- 장소: 제주학연구센터 2층
- ※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상 내역

| 대상 1명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 100만원 상당 상품권        |
|---------|---------------------------------|
| 일반 부문   |                                 |
| 최우수상 1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상, 50만원 상당 상품권      |
| 우수상 3명  | 제주학연구센터장·제이누리 발행인상, 30만원 상당 상품권 |
| 장려상 5명  | 제주학연구센터장·제이누리 발행인상, 20만원 상당 상품권 |
| 학생 부문   |                                 |
| 최우수상 1명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상, 50만원 상당 상품권       |
| 우수상 3명  | 제주학연구센터장·제이누리 발행인상, 30만원 상당 상품권 |
| 장려상 5명  | 제주학연구센터장·제이누리 발행인상, 20만원 상당 상품권 |

## 문의

제주학연구센터(평일 10:00~17:00)  
전화 064-900-1829 전자우편 [jeju0515@gmail.com](mailto:jeju0515@gmail.com)  
※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시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학연구센터([www.jsi.re.kr](http://www.jsi.re.kr)) 누리집 참조

<제10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제주어 공모전> 홍보물



제10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 제주어 공모전  
수상 작품집



# 대상작

## 히연 굴메

김정미

석석헌 동세백이  
사기사발에 께양하게 질어 놓은 곤물  
오래 전이부떠  
어머니의 하넨님이 뉘어 준 곤물

곤물을 콤은 날덜이  
벙벙 돌단 또시 돌아오멍  
가심소곱이서 물즈베기 일어났저

온찰 몸에 박싹하게 핀 열꽃신디  
춤 숨킬 심까장 문 내어줘 뉘  
늑랏이 누웁 이신 날이민

뉘 벙구완하여 줍센 비념하는  
그노롱헌 어머니 목청이  
사기사발 곤물 소곱더레 솔히 둥가정

몸뚱이 트멍트멍 벌강케 돌봐부튼  
열꽃 봉오지덜을  
어머니 손바닥으로  
솔솔 달루왕 기여들게 ㅎ얏주

경 흘 쟈마다  
비념소리 들은 하닐님 솔쨌기 땡겨갓덴

예배당 ㅎ 번 안 땡겨난 어머니  
손바닥 감지기 가심소곶더레 웅겨 놔둬서  
이지금도 가당 오당 ㅎ 번씩  
곤물 떠 낱  
하닐님 불러옵니께

히영ㅎ 사발 소곶 하닐님 곶은 물  
어머니 비념 궤양궤양 들어주는 곤물



제10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 제주어 공모전  
수상 작품집



# 일반 부문

## 제주어 밧디 물웨영 강낭대축 싱그곡

임병진

어멍은 촌이 살압수다. 제주도 원점표서 동편으로 50리 질. 이 밧실은 뒤이 오름부떠 양착 지맥이 바당으로 번어강 코지를 일뤽그네, 골채 안처록 포그락흔 디에 사름이 살압수다. 탐라국이 제주목으로 바꿀 때, 현이 설치웨난 오목은 날이 고을이난산디 땅이름이나 써는 말엔 짚이광 너레기가 이서마썸.

요디서 난 이제까지 사는 어멍은 제줏말을 으든흐나 나이테로 오고생이 곱춘 동네 직히는 폭낭광 흔 가지우다. 배운 거 웃곡 흔 밧디서 살압시난예. 흑교라근 1년 벳듯이 드니단 아시 애기엿게 노릇흐젠 흑교 문 나온 후젠 외하르방은 스삼에 오꼴 돌아가 부난, 공비는 돌담 다운 우티 범주리낭꺼정 올려논 썸입주. 비록 받침 엇인 글즈주만 들력에 누게 식개광 입낙흔 병원 일름은 제우제우 죽읍네다.

어멍 폭낭 그들이 새썸빋 말로 그눌르는 고단에서, 난 중흑교 밧글 때까지 살단 떠나수다. 지금은 제주시청 스방에 살압신디 예원 넘어가난 법이선 업으로 흐는 일을 손떼렌마썸. 느려놀 건 뇌비동 두불 사는 인생이난 제주어를 짚이 곱

비호젠 제주 역사, 문화, 말 그리치는 디 놀레 가듯 땡겨수다.

칠 년 전이 아방은 아침을 손심영 오는 친귀 술팽 두서넛 둥글어가게 내불곡, 서천꽃밭에 도체비고장 피어신고라 거썬 가비언마썬. 어멍 혼체 안팓거리집 거느령 사난 읍사무소이선 혼차 사는 어른으로 정호연 거두왓수다. 생활보호사가 이틀마다 전화로 잘살암신가 들어보곡 일주일마다 혼 번은 집이 좇아왕 시상 돌아가는 소리 소문도 곁아 준덴양.

간간 동네 삼춘이 콕대사나라도 주민 2정 강 먹으렌 전화가 옵네다. 낀마농은 이꺅이곡 스실은 보고정 호텐 2심으로 알아먹영 들러가마썬. 시간이 무기를 몸땡이 호나로만 준디난 하간디 성호 디가 엇일 나이난, 2식이 홀 질로 네정 그자 어멍 지넴신곤 보레 감수다.

노실 검사 받으렌 두 번이나 펜지가 오난, 어멍 웨상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가수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는 디 곁아봄썬 호난 줄바로 곁는 거론 총기라근 정광헨게마썬. 목요일마다 오는 치매예방교육을 신청헤수다만 그디에 들메진 아니호는 거 닥아양. 동네 조게가 밧디 유채2물이라도 비어 줍썬 호민 교육보단 2으로 어가라 가난마썬. 2량 독2롭 뺏암젠 호명도 아장 호는 일은 헤진덴예.

문장 날 건 아니주마는 머리 썬는 연심홀 거 시넨 생활보호사신디 곁으난, 색 연필로 줄긋곡 칠호는 치매예방학습지 2저당 준 모냥입네다. 나름냥 풀엇주만 뜯린 거 시민 어멍홀 건고 2든고라 나신디 잘헤샤 보렌예. 멧 개 뜯린 건 봐도 확 넘어가 불곡 손대지 못호 것만 2음 헐리 안 내게 2리쳐수다만 미신건가 풀이 소든 2입네다. 요까짓 것도 다호지 못헛덴 이녁냥으로 비치럼 톤 생이우다. 이 일 꺽으멍 기십 살린 일이 엇인가 좇아십주.

요조금 난 제주어 말불리 파는 일에 주우룻헬수다. 공비도 홀 점 어멍 보레 갈적마다 이 말은 언제 씩니겐, 이런 말도 시수겐 역부로 들어볼 말 호 포따리 든직

헛게 묶엉 가마썸. 포재기 풀민 아는 거 굽이 나올 때 ㄱ장 곱아줘예. 글로 베운 것광 뜯나게 말로 채득흔 거나산디 머릿소곱 곱광이 싹헛여양.

그로후젠 아덜은 어멍 글 ㄱ리치는 선생이 뉘곡, 어멍은 아덜 말 ㄱ리치는 선생이 뉘난 양진 폐와지곡 말소린 시랑시랑흙테다. ㄱ리치는 지뽴을 알아신고라 묻지도 아니흔 옛날에 들은 이웍덜이 제긋말 나이테가 소리판이 뉘고라 줄줄줄 나완, 거낫으로 ㄱ실 문게 예실곱 머리 봉근 ㄱ심마씨.

헛를 헛 번은 뜰림엇이 전화햐수다. 헤가 즈물민 미룻 여산헤 둔 말을 들어보민 재기 데답헛지 못헛는 경우도 셔예. 넘어가는 말로 밤이 뜰내엇당 곱아줍센 헛민 온말로 밤새낭도 생각헛텐양. 으름칠 모기처름 곱아둬서 언제 물레 놀려들지 몰르는 노실을 온채 막는 질은 아니주만, 마직헛게 머리 자울일 ㄱ심은 이실 만헛게마썸. 제긋말 밧디 헛디 놓시헛난 어멍이 자존감은 강낭대축부레기 베곡, 아덜이 말눈친 물웨 크듯기 커지난 헛를헛를이 새날이우다.

어는제 비오는 날 아적인 촌에 오랜 전화가 완마썸. 부영케 가난 덜기광 보태기 문제가 나온 학습지영 우영이서 즈른 새우리 헛 무궁이 지둘림서양. 새우리 묶인 모양이 두린 때 본 초개 지봉 이는 새 못광 지력시만 달를 뿐 얼푸시 ㄱ판마썸. 편뜯 새우리 말불리가 새가 아닌가 헛는 생각이 터올라수다.

입낙이 엇인 일요일 발환 새우리 말불리를 슬퍼수다. 제주어 사전광 으라 책덜토 풀이가 엇입테다. 말은 생각이 옷이렌 곧듯이, 새우리 달른 지역어덜은 미신 생각을 말로 멩글아신곤 알아봐서양. 《팔도 말모이》에 전라도 지역어 ‘술’은 입생기가 ㄱ느롱헛게 생긴 풀에서 나온 말이렌마썸.

《한국 식물 이름의 유래》에 제주어로 ‘새오리, 새우리, 세우리, 쉼우리, 쇠우리’가 올라 이서양. 뜻으로 보민, ‘술’이영 관련짓일 수 이신 말은 아멩헤도 ‘새오리’가 마직헛게마썸. 이 말은 ‘새’광 ‘오리’ 합성어가 햐주게. ‘새’는 옛말이멍 지금도 씨는 제주어곡 옛말 ‘오리’는 ‘ㄱ늘곡 진 것’ 뜻이난, ‘새오리’는 ‘새 읍’, ‘새 가닥’

의미로 봄직하우다. 이 ‘새오리’가 ‘새우리’로 변천돼시난, 이 시 말을 흔 식귀로  
치민 새오린 성이곡 새우리 아시곡 새는 어멍인게마썸.

오월 초상에 보난, 새광 새우리는 질고 ㄴ는 썸 서늱이 건쥔 ㄴ만ㄴ만하영 급  
갈르기가 예려울 정도입데다. 새먹을운동으로 지붕 바꾸기 전인 1970년대꺼정  
도 ㄴ실이 들민 집 일 새를 장만하젠 즈를젓텐예. 즐른 새, 각단으론 집줄 멩글곡  
진 새론 지붕 일어나신디양.

새우리 오장 흐름을 든든하게 오몽케 하곡 머리 핏줄을 ㄴ쿨이 하영 노실을  
막곡 위낙 봄철인 인삼 버금가는 심이 싯텐예. 땅이서 누웁 둥그는 굼벵이ㄴ썸  
느랏흔 기신을 우꺏 일리는 가근흔 먹을 ㄴ심입주게.

사는 게 폐와전 펜리흔 시상에 살암주마는 줌 못 드는 사름이 경 하텐예. 사름  
은 어멍 소곱이서 나왕 초담으로 쳐다본 천아반 높이가 ㄴ음 짚은 곳에 남아 이  
성, 줌자기 전이 질로 느끔흔 거렌마썸. 말불리론 새우리 어멍이 새인 중 안 후  
제, 밥상 우티 새우리집치라도 나오민 ㄴ심 속에만 남은 고향 초개칩이 생각남  
수다. 그런 날 밤이사 꿈사리도 아도록하곡마썸.

## 복날 노래

김순란

우리 집이 마당 구석  
해갈으멍 텅기는 독  
고고고고 불러가멍  
것을 주곡 물을 주멍  
서넉 돌을 키와신디  
우리 어멍 솔히 안앙  
알넉 바당 빌레왔디  
득런 가네 앓아둬서  
모감지를 와자자작  
똥와 제꺼 죽엿구나  
어멍 조름 돌아왔단  
느랏하게 죽어분 독  
눈물 제완 못 보키어  
목 중가전 못 먹으켜  
우리 어멍 날 키우젠  
정든 독을 잡젠 헛난  
눈이 엇인 바당에 간

빌레왔디 곱아둬서  
독 모감지 돼왔단 걸  
어떻ㅎ연 꺾렷구나

그루후제 세월 흘러  
유월 스무날 돼어가민  
우리 어멍 독 모감지  
튼내어정 을큰ㅎ고  
정든 어멍 생각나난  
목이 매연 답답ㅎ다  
동네 독집 좇아간에  
치맥 흘 땀 뻘일 엇단  
게프로사 유월 스무날  
독 먹는 날 돼어가민  
우리 어멍 생각남저  
어멍 생각 하영 남저

## 뚝 도고리

오창래

모지직 뚝은 입술기로  
구들 문 올라 제끼는 아의 어멍  
아니, 게프로 그자락이나 간세 허여집데가  
이녁 창지 그득져지난 늬 베고픈 중 몰랑  
춧마 오닐 집이 들어젓걸랑 뉘야지 것도 주곡 허주  
저기 통시에 뚝 도고리  
파싹 몰란 벨라지는 거 강 뵈서  
그 저곳디  
긋인 물통에  
물 흔 박세기 거려 놓음이라도 허킵데게  
경허여도 서넉 둘 후제  
저 어룬 아덜 장계갈 때 도새기 추렴 허민  
소님 데접힐 생각은 안 허곡  
쫓닥사니 실르게  
도감 쫓곳디  
주우룩하게 툃다 앓곡 허영  
뚝지름 지각헌 도새기궤기 낙물짐치에 몰앙

옴쩍, 옴쩍

소취는 아가리에 잘 거려 놓을 거라~

원 식상에

누긋 몰람시카 부덴

게도 저 착으로 그 홀어멍 쓸두레 ㄱ치

솔박이나 빌레 온초록 미시거엔 허대여 가멍

흔들흔들 들어와 봐

어느 흔 사름은

틀 귀

막을 귀 햏영

자당이라도 와들랑햏게 일어낭 헛지침 햏메이~

마당에 날레 넌 건 들엿구나마는

햏 번이나 젓어싱가~

늪은 골앙 웃곡, 나 속은 답답햏곡

아이고 내 스주 내 팔즈여

저놈의 장귀판을 구시더레 잡아 쫓아 불렌 햏민

## 불레낭개 메누리

이선영

이제사 곧 고등학교 졸업행  
무시거 경 종앙  
엇인 스나이신디 시집오라시니

엇인 집이 시집오랑 살아쭈만 해도 좋다마는  
어멍추룩 속을 우리 메누리 생각허난  
어멍은 벌써부터 눈물이 남쨌

두린 애기 포대기로 뚜러멩 줌 재우멍도  
시아방 바당 나갈 시간 됴민  
흔저 밥 출렁 안네기 바쁘곡

시아방 축항에 나가는 거 베령 오민  
시아주방 밥 안네곡

어멍도 경 살아오당 보난 사십 년이여

불레낭개 시집은 각시덜은  
자리 다듬엉 축항서 팔아사고  
자리 굽고 쫓영 스나이덜 상 출리고  
이 구진 디서 곱닥헌 얼굴덜 문딱 시커멍헤진다

메누리, 우리 불레낭개 메누리  
느도 시어멍추룩 살아사 혈 건디  
매날 어멍추룩 울어질 건디  
서룬 우리 메누리 어멍 허민 종을 거니

경해도 메놀아!  
어멍 살아보난 살아져라  
울지만 허지 안헝 흐썰 웃으멍도 살아져라  
다 전디멍 살아져라

어멍 말 민영  
우는 날 하영 이서도 춤으멍 살아도라  
우리 메누리. 불레낭개 우리 아꼬운 메누리

## 시상천지 아깝고 곱드락흔 우리 딸

김은정

시상에나, 나가 어멍이 뒤텔젠 병원이서 의사 선생님이 곴아 주는데, 아이가 8주가 뒤텔텐 곴는디이. 스몇 뭍슴은 쿵당쿵당 뛰고 우리 어멍은 오십도 안 뒤텔디 웨할망 멘들앗젠 즈들고, 웨하르방은 애기가 애기 남텐 한바탕 웃고이. 어멍 할 거라. 하르방, 할망 뒤텔어 분 곴.

평생을 딸로 살당 나가 어멍 뒤텔텐 허난 준비할 건 하영 잇인 거 님은 디 뒤텔준 비혜살지는 알아지느냐. 머리가 히엏득헛주게.

시간은 흐르고 배는 점점 나오고이, 다들 나신디 애기 벤 거 축하들 헌텐 곴는 디 난 곴이 막 난게. 게도이 막 맛 존 거 하영 먹언이. 너 덕분에이. 경도 복숭게 영 포도가 맛 좋아라게. 실컷 먹당 보난게 살은 병병 찌고이. 흐졸만 오몽해도 몸 무거우난 막 심들어라게.

결국 그날은 왓주, 베가 살살 아프기 시작헛게. 애기 낳는 건 처음이라도 그건 알아지크란게. ‘아, 드디어 너가 나영 만나젠 읍구나이.’ 헛주게. 하늘이 노랑헤사 애기영 만나진텐 허는데 노랑이랑마랑 베 아픈 거 조금 잇고 생각보다 뎡드

룽헝 신기하더라이. 그래도 낱젠 하난 소리도 막 지르고 심도 쓰고 어멍 돼기 쉬운 것이 아니라라게. 막 애돌았저. 너나 나나 혹시나게 아프카 부텐, 의사 선생은 다 건강하텐 하느디 너 낱을 때까지는 므슴 놓을 수는 엇언게.

너영 처음 만날 날, 막 생생하게 기억나멘, 우리 어멍, 너신디는 웨할망이지이. 웨할망은 아이고게 은정이 하나가 또시 나왓텐. 너가 너미 나 님안 곤는 소린디, 난 너가 나 님은 거 하나도 모르커란게. 도대체 너가 어딜 날 님아신고.

근디이, 눈 슬짜기 땡 손고락은 보들랑보들랑 허느디 너미너미 아꼬운 거라. 이걸 어멍 안지도 못하고 너미 죽아 부난 어멍 허질 못허크란게. 경헝도 나 똬이 렌 허난 기분이 묘헝게. 신기헝기도 하고이 너 낱을 때 아픈 건 어느새 다 잊어불 언. 너가 웃으난게 그냥 아무 생각엇이 막 좋안게.

경헝 난 애기어멍 소리 듣게 돼엇주게, 너 따문에이. 처음엔 젓을 어멍 물려사 똬지, 지성귀는 갈 줄 아느냐게, 나도 나 어멍신디 하나씩 베왓주게. 매날매날 너 만 보른 하루가 금방 가는 거 님안게. 너가 아공아공 웅알이 하느디 이 세상천지 경 아꼬울 수가 엇어.

이추룩 헛던 아이가 이젠 작산 거 똬언이. 스물두 살이라. 똬 헝도 막 고을 때. 난 너 어른똬젠 헝도 여전히 넌 나신디 애기라. 너 헝교 다니켄 육지 가부난 너영 떨어져 살게 똬영 경헝신디사, 요즘엔 막 옛날 생각 하영 나멘. 너 물애기 때 똬 지락헝던 때영, 다섯 살 똬가, 너 나신디 둘러오당 푸더정 막 울엇주. 난 너 스스로 일어나렌 일으켜주지도 앗고 기다렷주. 너 울당도 독믄름 탁탁 털영 잘도 일 어사라게. 경헝 베시시 웃으멍 나신디 돌아왓주.

경 건강하게 잘 자라당이 열두 살 때인가, 학교에서 너 숨 못 쉬엄텐 보건선생 님 전화 와실 때는이 아이고, 나 심장이 멎는 거 님아라게. 너 차에 태왕 종합병원으로 달려가느디 어멍 가신디도 모르크라. 님헝히 바로 폐 수술헝 의사 선생

님은 기흉이라는 진단을 헨이. 그런 병이 난 무신 말인지 알 말이가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게 안 되는 병이렌. 이게 무슨 일이나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딸이 아팠덴 흐는디 난 도대체 뭐렌 허는지도 모르겄고 눈물만 나더라게. 수술 끝나고 너가 눈 떠신디 그처럼 안스러울 수가 이시카게. 어떻게 할 거니. 이 아꼬운 걸게. 수술해 부난 가심의 큰 송허물은 어떻게고게.

한 달 넘게 입원허는 동안 넌 잘 참앙 퇴원헤신디 학교 잘 다니당 또 한 번 더 수술헛주. 이상헛다 싶엉 이디저디 알아봐신디 결국은 너 어릴 때 췌던 가슴기살균제 때문이었주.

뉴스엔 나올 법한 일이 우리신디 일어난이. 나가 죄인이주. 가슴 치명 눈물 나도 무신 말을 너신디 허크니. 난 경 웰 중 알아신가이. 너 더 잘 키와 보젠 흐 일이 이자락 송시날 줄은 몰랐주. 다행인지 너 아시신디는 이런 증상은 아직은 안 나타남신디 경해도 난 어떻게인지라 하간 게 다 걱정웨엄저.

이젠 어른 돼시난 건강헌 거는 님은 디 혹시 또 나이 더 들든 언제 증상이 나타날지 모르는 일어난 늘 조심허렌만 말허주게. 넌 헤심심허주만은 경해도 집 떠냥 사는 족식 걱정허는 것은 어멍 적시주게. 뭐 이시크냐.

세상에 다 맛음먹은 냥 안 웨라마는이 살아보난 족식도 어떻게지 못헨게. 난 셋이나 키웁주마는 어느 하나 나 몸냥 웨는 게 이시냐게.

그건이 우리 어떻게 그 생각헸일 거여. 나도 우리 어떻게 원지는 대로 살진 못한 거 님아. 경해도이 너네 키우멍 너네 셋이 잘 자라주난이 난 막 좋아. 가끔이 힘들긴 해도이 너네 키우멍 나도 어떻게 웨언 진짜 어른 웨엇주, 경 안 헤시든 나도 철엇이 살아실지도 모르주게. 아이 낳고 어떻게 웨난 나도 철들엉 이제 세상을 흐쓸 알 거 님아. 뭘 흐든 웨는지 뭘는 허지 말아야 웨는지. 늬들광 어떻게 살아사 웰 건지도 알고이.

젠디 아꼬운 딸아! 난이 너가 어디서 뭘 허든지이 너가 제일 행복헤시믄 좋으  
크라. 나 딸이 행복헤사주게. 다른 게 뭘 이시니. 너 행복허믄 어멍은 지꺼지주.  
난 그거믄 뻘쥬.

스랑흐는 딸아! 살당 보민이 힘든 일 하영 이신다. 게도 잘 준덩 살아 보라. 살  
없이믄 살아진다. 근디이 무조건 준디지만 말곡 너가 지꺼질 만한 것을 좇아보  
길 바렘저.

나도 살아보난이 나가 행복하지 안허민 다 소용 엇어라. 어디 강 너가 뭘 허든  
이 너가 행복헌 게 최고여. 미래를 준비허젠 애쓰는 거 보민 우리 딸 하영 컷구나  
생각은 허는디이 미래 준비헌덴 오늘을 너무 힘들게 살지는 안헤시믄 좋으크라.  
공부허당도 가끔 하늘도 보곡 브름도 느끼고 경허멍 살라. 건강 챙기는 것도 잊  
어 불지 말고이.

우리 딸 어디서든 행복허길 바렘저이. 엄마는 항상 이디 잇일 거난 언제든지  
힘들믄 이 어멍 품으로 돌려오라.

사랑혼다이. 시상천지 아깝고 곱드락혼 우리 딸!

2022년 9월 ㄴ슬에 제주에서

어멍이 딸 생각허멍 보넴저

## 쉐섬<sup>(牛島)</sup>에서

오창래

새백년이  
헤트는 거 보젠  
섬 머리 혼 모사리 좇아와십주

주간명월  
동산 혼 펜이  
질그렁이 부떠 앓안  
동더레만, 동더레만 빈주룽이 슬퍼볼 때  
저 췌당도 누귄가 하영 기려와신 7라

절백  
아레착에선

골매기  
애 그차지는 소리  
설럽게 들렘수다

바당을 목장밭 삼앙  
여기 누운 밧갈췌 흥나는  
췌다리 내웁살로 슬췌기 다가 앓고

뭇음으로만  
왜늡덜싸디 뵈췌 대여들던  
우리 아방 어멍덜  
늡큰흥지도 안흥영  
그때, 그 설룬 일덜을 또 이레 꺄엥 올 때  
오늘은  
아적 헤 터오르는  
섬 머리어서  
누기 들으렌 것산디  
“메기의 추억”만 이영 흥엇이 불러 뵈수다

## 살젠 하는 건

강래화

살젠 하는 건

꼬부라진 질

눈 베롱이 텅

족은 발걸음 즙곤죈 맞추와 가멍

흔 발짝 두 발짝 나사는 일

살젠 하는 건

아버지로 어머니로 잇어진 사름이 뉘엿

울컹흔 가심 네어와 주어 된

아뭉치도 안 흔추룩 입 꼭 종근 냥

가당 오당 마주흔 가시자왈 질 슬짝하게 헤싸 잣혀 나사는 거

살젠 하는 건

손끗덩이 거껴진 인연에 고마왕 헝멍

과랑과랑흔 하루 헤가 즈물아 분 후제도

느랑 뜬내어지는 곱닥흔 사름으로 남양 이시는 거

시상 사는 게 뻔뻔하여도

구짹 피어날 존더넨 이녁

그자 볼 나으 웃인 혼 점 먼지가 돼어도

살멍 불르고정 혼 그려운 일름 하나 소굽에 냉겨시민

기여, 거만으로도 푼드랑혼 일

## 단팥애기 즈녀

강래화

잇날 서펜이 무살동네

버랭이 무을엔

단팥애기 두릴 적

벗광 놀멍 체암 베운

멘주기 헤엄

쉴 트멍 웃이

바당더레 둔곡

물에 들레 가게

물에 들레 가게

흔 딜로 하는 일

저싱 이싱질 헤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좁녀덜 지켜줍서  
불어 터진 양착 손 모두왕  
봉덕에 불 썬 빌었주

절 들럭퀴는 바당  
철썩 들어 가민  
놀쌩흔 몸 딱시 심이 나

호이 호이  
들숨 날숨 입바우서 춤추어 가민  
바당도 딱랑 심백헝멍  
이여싸나 이여싸나  
어가라 물질헝는  
우리 어멍

## 느영나영 제주서 살게

강경인

저디 저 높은 할락산 베려보멍  
느영나영 7치 높은 꿈꾸멍 살아보게  
설렁 오르는 길이 버쳐도  
아니 오르는 것보단 나실 거난  
저디 저 높은 할락산 베리멍  
우리 7치 희망의 꽃 피워보게

요디 요 푸르릉헌 제주 메밀밭디 베리멍  
느영나영 푸르게 스랑허게  
베려 보민 막 고운 밧디라도  
자왈드레 가는 가시밭길도 잇기 마련이주  
힘들엉 쓰러지민 혼저 오랑 손잡아 주멍  
요추룩 느영나영 푸르게 스랑허게

그디 그 제주 옥빛 바당 베리멍  
헉썰 맑게 살아가게  
느영나영 가진 투멍이

검붉게 물들어 오는 순간이 와도  
그디 그 제주 옥빛 바당처럼  
어멍 뱃속에서부터 맑았음을  
여먹지 말앙 기억하게

할락산추룩 메밀밭디추룩 바당추룩  
저추룩 요추룩 그추룩  
ㄹ망지게 살아가게

느영나영 사는  
이디 제주가 주는 곱닥헌 설렘에  
이디 제주가 주는 아꼬운 행복에 취행 살아보게



제10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 제주어 공모전  
수상 작품집



# 학생 부문

## 처음 보는 할망인디

조우현

“조수 버스 가불어샤?”

처음 보는 할망인디

나신더레 물어봬찌

10분 후제 온덴 헝난

처음 보는 할망인디

어디 살암시넌 물어봬찌

조수 보건소 쯔끗디엔 헝난

처음 보는 할망인디

우리 하르방 이름을 알암신게

“잘도 옥아 불어신게”

처음 보는 할망인디

물애기 때 나를 봤덴

누게 누게 조케 아들  
잘도 잘도 ㄹ망지다  
과자 사렌 돈을 줌쨌

웬당이파 물어보난  
이딘 문딱 웬당이렌  
받아지난 코샷흔디  
누겐지는 잘 모르켜

## 죽은딸이 어명신디 편지 씬수다

김은정

어명. 나 은정이우다. 나가 어명신디 영 편지 써본 지가 막 하영 오래된 거 닙수다. 이추룩 현 기회가 별로 엇어나신디 글로 썬 제주어 알린텐 허난 난 어명신디 길게 말 곁아지고, 사름덜도 이추룩 평소에도 제주어 쓸 수 잇텐 현 거를 알아질 거 아닌가마썬? 경 생각허난 거창하게 글 써야 뽴직헌디 생각보다 제주말은 어렵지 안행 아무 때나 막 잘 써지는 말인디, 사름들은 잘 모르난 이 기회에 나가 글 한번 썬은에 쉽게 써진텐 허는 거를 막 알려주고 싶어마썬.

나가 육지에서 태어나신디도 영 제주말 하영 곁아지는 거는 평소에 우리 가족이 말할 때 제주어 하영 쓰곡 허난 경헌 거 닙아마썬. 할망 하르방이영 밧디도 다니곡 혼디 모영 츠레도 지내곡 허당 보민 자연스럽게 제주어를 듣곡 말허곡 홀수 이신 거 닙아. 평소엔 어명신디 반말로 이야기허는디 영 글로 쓰젠 허난 흐썬 떨렘신게. 이 편지가 어명신디 님을 수 이실 건가? 나 막 부끄러워부난 일단 쓴 다음에 고민허쿠다.

나가 이제 열다섯 살이난 성은 스물세 살인디 언제 영 시간이 지낭 벌써 이 나

이 댜어 붙어신지 모르크라. 어릴 때 기억은 많이 엇인디 성이영 바당에 강 놀고 이디 저디 다닌 기억은 흐쓸 남신게. 경해도 어멍, 아방이영 성이영 혼디 모영 놀레 간 적은 하영 잊지 았은 거 다햇 아쉬운 게 남압수다. 언니 취업헤 붙영 바빠지기 전에 어디 놀레 가사주? 맨날 얘기만 허곡 실천은 안 허민 어뎡헐 거라? 나 수학여행 갔다 오민 언니도 흐쓸 방학 잊덴 허난 그때 가민 어뎡 건고 행 말 꺼 남수다.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이런 여행이 소중헌 건지 잘 몰라신디, 나당길 때마다 마스크 쓰곡 손소독 허곡 허난 놀러 가는 것도 편치 안행 놀러다니는 것이 막 소중헌 것을 느낌수다. 몇 주 전에 우리 다 혼디 모영 신화월드 워터파크 간 날 어멍 아방이 일 일찍 끄냉은에 우리 위행 ㄱ치 강 놀아준 거 하영 고맙게 생각하고 잇수다. 맨날 바빠부난 성이영만 노는디, 어멍 아방 ㄱ치 슬라이드 타고 수영헐 게 나신디는 막 소중헌 경험이우다. 경 허난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정은에 다른 사릅들도 편히 뎡겨시믄 좋으크라.

경 허곡 어멍. 나 곧 시험 보는디 점수 하영 나오지 안허여도 괜찮은 건고마썸? 공부는 흐쓸 험신디 시험은 어뎡 잘 봐질지 잘 모르쿠다. 1학기 다햇 안행 이번 엔 막 어려워부난 생각보다 못 볼 수도 이시크라마썸. 성이영 도서관도 다니뎡 노력은 허크메 응원헤줍서예?

어멍. 경 허곡 나 얼마 전에 부반장 나간덴 말허여신디 어멍, 아방, 성이 나 공약 쓰는 거 도와주곡 헐 수 잇덴 허멍 힘 붙어 넣어 칭 막 고맙수다. 성추룩 나도 쑥스러움이 흐쓸 이서부난 말허는 거 어려울 거렌 생각헤신디, 가족 생각헐은에 잘 말헐당 보난 부반장 뽑힌 거 다햇마썸. 수학여행 때 반장, 부반장이 이끌영 다녀올 거 다햇디, 나 더 노력헐은에 잘 다녀오쿠다.

성은 나서는 거 어려워 헤부난 면접 때 생각보다 잘 못헐 거 다햇헐 힘들어 허는디, 경 허여도 우리 성 똑똑하고 말 잘허니까 취업 잘 뵈 거라예? 나는 성이 제주

도에 혼디 사는 것이 좋으디 성은 육지 강 더 배우는 것도 좋으난 어디든 붙어  
서 좋으크라. 어명도 경 생각했지예?

아이고. 아방은 어제 코로나 걸령은에 막 기침허고 난리도 아니라. 건강헌 게  
제일 중요헌디 아방 저처럼 기침허당 목 찢어지믄 막 아플 건디. 걱정웁수다. 경  
허여도 일주일 일 가지 안행 텔레비 보멍 노는 건 부러워마썸. 나영 성이영 어명  
은 맨날 아침 일찍 일어남 나감신디 아방은 계속 누워 이실 수 이시난마썸. 경헌  
디 아방은 나다니는 거 좋아해부난 좀 쭈실 수도 이실 건가? 하여튼 격리 잘 허  
영 우리 나머지는 걸리지 않게 조심해사돼쿠다.

7월에 성 병원 면접 볼 때 우리 혼디 모영 서울 갔을 때 성이영 나영 ㄱ치 롯데  
월드 갔당 와신디, 실외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돼난 우리 마스크 안 쓸 때도 이서  
나신디, 우린 안 걸리고 무사 맨날 운전만 허는 아방이 걸려신고? ㄱ치 밥 먹는  
사름이 걸리면 혼디 걸리는 거라. 그게 무서운 거주. 앞으로 흐썸 조심행은에 며  
칠만 고생허게마썸.

어명. 아방이 일 그만뒀 택시 험신디 혼자 삼촌들이영 일허젠 허난 힘들지 안  
험수과? 막 힘들민 우리신디 말해줍서. 우리는 고민 이실 때 어명신디 다 말허는  
디, 어명은 힘든 거 내색 안 허젠 말 안 하는 거 다행 나 속상할 때가 이서마썸. 알  
앗지양? 아방신디 택시 허당 버치믄 부항 떠주크메 언제든 말허렌 말해줍서. 아  
방이 부항 떠주민 학교ㄱ장 몇 번 데려다 주켤 허여 나신디 까먹어신디사 아직  
몇 번 안 태워다 줬신게. 성이 맨날 학교 데려다주난 경험신가? 성이 학교 데려  
다 줬 집ㄱ지 데려다주난 나는 막 편해마썸. 성이 제주도에서 일허는 게 더 좋은  
이유 중에 하나렌 볼 수 이신디 성은 몰람실 거라. 성도 가족이랑 혼디 살멍 이야  
기허는 것이 더 좋덴 허여나시난 잘 고민헤 볼 거우다.

아무튼 어명. 이 기회로 어명신디 편지 썸신디 흐썸 오그라들어도 잘 읽어줍  
서. 경 허곡 이런 대회 다투는 것이 더 하영 생기믄 사름들이 더 관심 가정은에 제

주어를 하영 활용형 낼 거 다했다, 아직 이런 게 하영 짓지 않아부난 제주어가 소멸 위기렌 허는 거 다했다. 성이 학교에서 수업 들어신디 제주어 사용이 저조해 부난 소멸 위기렌 헉디다. 이추록 편하고 예쁜 우리 제주어를 널리 퍼뜨려 후대에도 써살 거 아니라? 게난 나부터 이추록 많이 쓰고 공모전도 나가명 보존하고 전승시킬 수 있게 노력하고 잇수다. 성은 작년이랑 재작년에 학교에서 허는 공모전 나가신디 막 재미나 보이기도 허곡 제주어도 보존할 수 이시난 나도 한번 해보는디, 어렵지도 안허난 어명도 나중에 나신디 이추록 편지 써줍서.

어명. 나가 말로 표현은 잘 안 허여도 늘 어명 사랑하는 거 알람지양? 늘 우리 위행 맛 이신 거 해주곡 놀아주곡 우리 위행 애써줘서 고맙수다. 나가 쑥스럽을 하영 타부난 말은 잘 안 흐는디 오늘 집에 가민 말흐쿠다. 게민 이만 줄이쿠다.

## 딱뚝히게 입으라

양나경

우리 할망 전화허믄  
딱뚝히게 입으라  
골은 말 또 골으멍  
손지 걱정뿐

우리 할망 좇앙 가믄  
무사 와시니  
보고팡 또 보고팡 허멍  
손지 걱정뿐

우리 할망  
너 오민 주젠 헛저  
주멍기에 곱져 논  
만 원짜리 한 장

언제부터 곱져 놔신지  
꾸겨정 폐와지지도 않는  
언제사 오카 잘도 기다린  
만 원짜리 한 장

손에 들엉 돌아오는 길  
멩심헝 가라  
딱뚝허게 입으라  
들리는 할망 소리  
오늘도 눈물 낭 뒤는 못 돌아보켜

## 우리 할망

이예주

우리 할망 우영팻 덩겨오민  
독막툼이 쑈시덴 혼다

우리 할망 밧디 덩겨오민  
메날 기십엇덴 혼다

밧일 헝지 맵센 헝여도  
놀아지민 히여뜩헝곡 더 아프덴 혼다

살레 곱져둔 돈 보민 할망 돈도 한 거 닳은디  
오닐 또시 골갱이 심엉 밧더레 간다

손지 막음 애쫓는 거 몰랑은에  
오닐 또시 구덕 들렁 밧더레 간다

## 돌 보러 가게

김아영

과랑과랑

뜨뜻한 어느 날

오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사이

“거 줄바로 걸으라게!”

코질락코질락 용심내는 할망

“천천히 가”

헬랑헬랑 걸어가는 아시

그 모든 것이 질거워

헤싉헤싉 웃는 나

고장들은 무얼 먹고 피었는지

참으로 아깝다

낮에는 바당 위 황고지 보았으니

밤에는 오름 위 돌 보러 가게

## 꽃을 걸을 때민

안다교

꽃을 걸을 때민  
뜨뜻한 향기가 난다

꽃을 걸을 때민  
죽은 버랭이들이 반겨준다

꽃을 걸을 때민  
떼굴떼굴 열매들이 베려진다

꽃을 걸을 때는  
벼름과 혼디 걷는다

영허난 꽃이 좋다

## 얼쭈! 제라지다 제라져!

박수경

안녕하시우파?

나는양, 남초등학교에 댕기는 4학년 박수경이렌 햏염수다.

요번이 나가양 제라진합창단으로 독일터레 댕겨온 이야기를 곱아보젠 햏염수다.

제라진합창단이라고 들어봬데가?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은양 뭇 우리 제주어로 노래햏는 곱딱한 아이들의 합창단이우다. 우리 제주어 제라진이렌 햏 말 뜻 알아지쿠과? 맞수다! 제라진이렌 햏민 ‘좋다, 멋지다, 최고다’라는 뜻 아니우파? 잘도 요망진 아이들이 노래햏는 합창단인디양 그야말로 제라져 불염수다게.

독일에 간에 동물원도 가곡 놀이동산도 가곡 햏엿수다. 가든 파티렌 햏는 것도 헤신디예, 가든 파티가 뭇지 알아점수과? 뭇나면 집이서 사름덜이 하영들 모영 막 저프게 먹고 노는 거우다. 그딘 수영장도 잇어신디 햏염치지 못헤부난 막 을크랑헨마썸.

첫 공연을 할 때 댜난에 경 공연을 으라 번 헤신디도 잘도 므심이 떨런예. 떨리는 므심을 곱져두곡 스몓 잘 흥여보젠 친구들도 폭삭 속았수다. 우리 ㄱ라 막 곱다 곱다 흥난에 막 부치로완 빙삭빙삭 웃기만 흥엿수다.

댜난 공연 장소인 이르푸르트렌 현 딘 강 보난 시상에 큰큰흔 건물덜이 벨롱 벨롱흔 게 다덜 이뻗수다. 제주도에선 안 흥던 질더레 가명 노래 부르기를 흥난 베려보는 사름덜이 잘도 지꺼정 험디다. 우리도 처음엔 재미로만 불러나신디 사름덜이 지꺼정 흥는 거 보난에 므심이 뿌듯헨마썸. 공연이 쑗나난 사름덜이 태극 무늬 부채를 막 흔들멍 흥난 우리가 한국의 제주도 사름이란 게 잘도 자랑스러웠수다.

맨날 먹던 한식도 그디 한식당에서 먹으난 잘도 맛좋읍디다. 식당 주인 삼춘이 합창단이렌 흥난 노래 흥 곡 불러도렌 헨 ‘빙떡’이란 노렐 불렀수다. 우리 막 신이 나서 불러신디 주인 삼춘은 한국 생각이 난덴 흥멍 눈물을 자죽자죽헤부난 괜히 므심이 이상헸수다. 한국을 떠낭 살아가당 보난 잘도 고향이 그리운 생이라예. 경헤부난 우리가 더 막 씨게 노래 불런마썸.

그디 전통 음식도 막 맛 좋게 먹어신디 가는 디마다 우리신디 노래 불러도렌 헨 이번인 ‘밥은 하늘입니다’라는 노래도 불렀수다. 밤에 게르라는 섬에 강 노래 부르난 사름덜이 모금헨에 아이스크림 먹은 것도 기억에 남수다. 독일에는 똑 우리추룩 동독과 서독으로 곱갈라지던 벽이 잇어났덴 흥염수다. 독일 사름덜이 통일웨야 흥덴 흥멍 막 물려들엉 통일뤼덴 그 말 들으난 우리나라도 재기재기 흥나로 통일 웨시믄 흥는 므심이 들엿수다.

질 지꺼진 일은 독일 사름덜이 제주도를 몰라신디 우리 따문에 알게 뵈덴 흥난 막 좋읍디다. 우리 합창단을 민간 외교 사절단이렌 곤는디 그 말이 똑 맞는 말이구나 생각 들엿수다. 영 갓당 오난 우리 제주어로 노렐 부른다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구나 생각헸수다. 경흥곡 우리 제주어를 멩심헤영 지켜나가사쿠덴 흥는 생

각도 헨마썸.

또시 독일더레 가진 못 햏여도 제라진 친구들이영 제주어 노래로 열심히 알려멍 다녀사쿠다. 심드렁 뽀뽀햏지 말앙 우리가 몬 소문내왕 제주어 지켜볼게 마썸.

제주어, 제주해녀, 제주 4.3을 알리고 노래햏는 우리 합창단, 춤말로 제라지지 앓으파!

## 추물락하다

윤정민

밤중이 나 혼차 걸어가고 이신디  
고녕이가 확 지나갔다  
나 가심이 추물락했다  
땀도 발작 났다  
도체비가 나타난 것만 곱았다  
우리 할망신디 너미 무수와렌 곱으난  
우리 손지 녀 나갓덴 허멍 녀 들여사켄 허엿다  
녀이 똬고?  
녀을 고녕이신디 드린다는 말인가?

## 기억해야 할 우리의 4.3

김지유, 김동건





제10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 제주어 공모전  
수상 작품집



# 심사평

## 시 부문

---

- 언어 이전에 소통의 방법으로 사용했던 ‘말’을 언어로 표기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더구나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지역어(제주어)는 표준어에 휘둘려 생명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어 공모전을 통하여 살펴본 시 부문 응모 작품을 자칫 표준어의 번역에 머무른다면 제주어의 ‘맛’은 살려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몇몇 작품은 그 ‘맛’을 잘 살려내고 있었다고 봅니다.

- 제주어 공모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어 표기가 되지 않은 작품들도 있었고, 제주어 표기에만 집착한 나머지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는 그런 작품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주어 공모전이라고 해서 문학작품들의 작품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여 이번 심사에서는 제주어와 함께 문학성 있는 작품을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 자신의 경험담을 가지고 쓴 작품들이 많아서 다양한 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어 표기법에 맞지 않은 표현들이 많아서 아쉬움이 있지만 다양한 어휘를 활용하였다는 점은 좋았습니다.

## 산문 부문

---

- 한 마디 못하고 내뱉을 말이 아닌 이상 제주어 산문을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표준어 교육, 혹은 새로운 문물의 유입은 제주어로 무엇인가를 표현하기조차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조곤조곤’ 풀어내며 산문 부문에 응모한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제주어 공모가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 출품작 중에는 우화동화라 할 수 있는 글, 외지인 입장에서 바라본 제주어, 옛날 어르신들의 삶을 그린 글, 딸의 출산과정을 애절한 어머니 마음으로 그린 글, 부모님의 삶을 반추해 보는 글, 막내딸이 아버지를 그리는 편지 형식의 글 등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작품성이 미흡했거나 산만하여 읽기가 불편한 작품을 제외하고 두 편의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제주의 문화가 담긴 다양한 주제의 글을 만나지 못하여 아쉽습니다. 다만, 제주어 표기법은 잘 지켜서 작성한 작품들이어서 이 점은 매우 반가웠습니다.

## 시 부문

---

- 학생 부문 응모 작품은 제주어 표기에 수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응모자들의 노력이 돋보였으며, 시적 완성도가 높은 시가 많았습니다. 다만 학교에 따라 지도교사의 손길이 미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남았지만,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 학생들의 생활에서 묻어나는 제주어를 활용한 제주어 시에 눈이 오래 갔습니다. 경험이 있는 녹아 있는 시들은 공감과 흥미를 일으켜 좋았습니다. 너무 어른스럽게 쓰지 않으면 더 순수한 제주어 시가 나올 거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었습니다. 해녀, 돌하르방, 할망, 꽃자왈 등의 소재도 좋지만 좀 더 다양한 내용이 나오길 바랍니다.
- 학생부의 글인데 학생의 정서가 아닌 듯한 글이 여럿 보였습니다. 새로운 말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글도 있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이 오히려 감점의 대상이 되어 아쉬웠습니다.

## 산문 부문

---

- 학생 자신의 이야기를 이끌어 간 솜씨가 좋았지만 제주어를 서술하는 능력이 글 솜씨에 못 미쳐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조력이 없이 썼다는 점은 높이 사고 싶습니다.

- 솔직한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제주어를 표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시에 비해 산문 응모자가 적은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 제주어 표기(맞춤법, 띄어쓰기 포함)보다는 표현에 초점을 두어 심사했습니다.

#### **제주어 대역 부문**

---

- 제주어 대역 작품에 다채로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좀 더 다양한 색깔의 작품들을 활용한 대역이 등장  
하면 좋겠습니다.

#### **제주어 동영상 부문**

---

- 동영상 응모작들이 대체로 동영상이 가진 활동성이 없이 단순 암기 구연 수준이어서 아쉬웠습니다. 다  
만 제주어 구연 능력은 매우 우수한 응모자들이 있어 시선을 끌었습니다.

- 제주어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로 말하기가 중요한 언어입니다. 아직은 학생들에게 제주어가 어  
려울 텐데 제주어의 발음과 억양에 신경을 쓰며 구사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 제9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 -제주어 공모전 시상식





제10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제주어 공모전 수상 작품집

## 히연 굴메

---

**발행일** 2022년 11월 4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8, 3층

<http://jst.re.kr>

인터넷 신문 제이누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 엘리시아아파트 상가 6층

<https://www.jnuri.net>

**편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제작** 한그루

[onetreebook.com](http://onetreebook.com)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발행처 및 수상자의 허가 없이 무단 전재나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

올해는 학생부가 99편으로 일반부 47편의 ‘곶절’이나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묻어나는 표현들을 ‘조곤조곤’ 풀어낸 작품들이 많아서 좋았다.”라는 심사위원의 평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제주어의 ‘맛’을 살려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입상작을 모은 《히연 굴메》 수상 작품집을 냅니다. 《히연 굴메》는 김정미 님의 대상 수상작 제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곶물’을 떠 놓고 자식의 병을 고쳐 달라고 기원하는 어머니의 절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 ‘수상 작품집을 내며’ 중에서

